

**The Gospel of Mark**

Sermon 30 – Sermon Notes

Title: “The faith of a Gentile”

Scripture: Mark 7:24-30

Date preached: March 26th 2023

**Scripture: Mark 7:24-30**

**24 From there He arose and went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nd He entered a house and wanted no one to know *it*, but He could not be hidden. 25 For a woman whose young daughter had an unclean spirit heard about Him, and she came and fell at His feet. 26 The woman was a Greek, a Syro-Phoenician by birth, and she kept asking Him to cast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27 But Jesus said to her, “Let the children be filled first, for it is not good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little dogs.” 28 And she answered and said to Him, “Yes, Lord, yet even the little dogs under the table eat from the children’s crumbs.” 29 Then He said to her, “For this saying go your way; the demon has gone out of your daughter.” 30 And when she had come to her house, she found the demon gone out, and her daughter lying on the bed.**

24 예수님은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하셨으나 곧 알려지고 말았다. 25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진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26 그녀는 수로베니계 태생의 그리스 사람인데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였다. 27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자녀들이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던지는 것은 옳지 않다.” 28 “주님,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29 “네 말이 옳다. 이제 너는 돌아가거라. 이미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그래서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이미 나가고 어린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Review**

Before we look at today's passage of scripture let us take a moment to review what we looked at last time.

We concluded the account of Jesus second reported confrontation with a delegation of Scribes and Pharisees. They had travelled down from Jerusalem ostensibly to evaluate and assess what the Lord Jesus was doing. However as we have seen from their previous interaction with the Lord they are not open and fair minded. They have predetermined to disprove of what He is doing and find whatever way they can to accuse and stop Him. Their opportunity arises when they see some of the disciples eating without first washing their hands.

This as we said had nothing to do with good hygiene but was a symbolic act or ritual. It was all part of being ceremonially or spiritually clean before God.

It formed part of the oral law or tradition held by the Pharisees. This oral law was not derived from God's commands in scripture. It was a complicated and elaborate set of man-made rules that were designed to ensure that no one ever came close to breaking God's law. Although it may have been well intentioned in theory, in practice it put a great burden on people. It made trying to love and obey God a time consuming and tedious process. But even more importantly it drew people away from what God really wanted from those who love Him.

The Scribes and Pharisees had added a whole unnecessary extra layer to what God had commanded.

They were even teaching people that their man-made laws superseded Gods. That is was okay to reject what God said in order to follow their traditions. When we understand this we can appreciate why the Lord Jesus Christ so forcefully responded to these religious leaders.

The Lord Jesus centres in on just one of their egregious practices. It was the practice of Corban. As I explained last time Corban is a Hebrew word which when translated means, “a gift or offering consecrated to God.” That on the surface sounds like a good thing. God is pleased when we generously give back to Him. Scripture tells us that He loves a cheerful giver (2 Cor 9:7). However Corban was being used as a way to cunningly avoid or bypass God's command to honour our fathers and mothers. This remember was one of the ten commandments. It's not something we can discard or ignore. The law of Corban however allowed a person to excuse themselves from helping out their needy parents. They could claim that any money or property they had was dedicated as a gift to God. This in effect was what people could say;

“I'd love to give you some money mom and dad but unfortunately I've gifted it to God. You wouldn't want me to break my vow to God would you?”

This of course was not wholly true. They could continue to use the money or property themselves or even for a small penalty fee break the Corban vow and take back the gift. The Corban vow really just meant that no one else could use or benefit from the money. So Corban was really just a ruse to reject what God had commanded.

The Lord Jesus was rightly disgusted by the practices promoted by the Pharisees. He called the people to Him and explained to them that the priorities of the Pharisees were all wrong. They had things back to front. The things that make us defiled and impure in God's sight are not external to us. They are not out there. Rather the things that make make us sin originate inside us.

Later the disciples ask Jesus to explain more clearly what He means. They remember had lived all their lives immersed in this culture. To learn that all this worrying about becoming defiled by things around you was unnecessary must have been shocking to them. The Lord Jesus explains using the illustration of food. When we eat something it goes into our mouths and ends up in our stomachs. From there we pass it out of our bodies. Food then always remains just food. We do not become sinful by the things we eat. What does make us sinful is our wicked hearts. We become evil or defiled because we give into the sinful thoughts that originate within us.

When we think on this we begin to appreciate all the man made religions of this world. They are all centred on the things we can do to make us “right and holy.” If you follow this work or that procedure then all will be good. No, says the Lord Jesus. That's like carefully cleaning the outside of the bowl and leaving the inside dirty.

Do we have the ability to clean the evil inside us? Can we make ourselves holy and presentable to God? No we cannot. Christ and only Christ can do that.

That is why the teaching of the Pharisees was condemned by Jesus. Today we have a story of great faith. Pointedly, it is not the faith of a Jew, but the faith of a Gentile.

오늘의 성경 구절을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께서 두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대표단과의 대결을 보고하신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주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평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의 이전 상호 작용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 고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반증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막을 수 있는 모

든 방법을 찾기로 미리 결정했습니다. 제자들 중 일부가 먼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볼 때 기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이것은 좋은 위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상징적인 행동이나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간직한 구전 율법 또는 전통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이 구전 율법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파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복잡하고 정교한 인간이 만든 규칙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 의도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한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불필요한 한 겹을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만든 법이 신보다 우선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토록 강력하게 응답하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들의 터무니없는 행위 중 단 한 가지에 집중하셨습니다. 코르반의 관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코르반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또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돌려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고후 9:7). 그러나 고르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교활하게 피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기억은 십계명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코르반의 법은 궁핍한 부모를 돕지 않을 수 있는 변명을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이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선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에게 약간의 돈을 드리고 싶지만 불행하게도 나는 그것을 신에게 선물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나님께 한 서약을 어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재산을 계속 사용하거나 약간의 벌금을 내고 코르반 서약을 어기고 선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코르반의 서원은 실제로 그 누구도 그 돈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은 정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거부하는 책략에 불과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조장하는 관행에 대해 정당하게 혐오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우선순위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앞뒤로 물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더럽고 불순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납니다. 나중에 제자들은 예수께 그가 의미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이 문화에 젖어 살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위에 있는 것들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을까 하는 이 모든 걱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음식의 비유를 사용하여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때 그것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고 결국 우리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 밖으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음식은 항상 음식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악된 생각에 빠지기 때문에 악해지거나 더럽혀집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간이 만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를 “올바르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나 저 절차를 따르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니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릇의 겉은 조심스럽게

닭고 안은 더럽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청소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예수님께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믿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입니다.

**24 From there He arose and went to the region of Tyre and Sidon. And He entered a house and wanted no one to know *it*, but He could not be hidden.**

We see here the Lord Jesus' response to the hostility of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Their rejection of Him and their continued attacks must have been both frustrating and exhausting. So for the first, and as far as we know only time in His ministry, Jesus leaves Palestine and heads into Gentile territory. Mark remember was writing to a largely Gentile audience. So its understandable that he reflects in his writing that it was God's will that the good news though initially for Jews was also for Gentiles. So why did Jesus cross the border into another territory? It would be wrong to say that Jesus was running away. The Lord Jesus was never cowed by those who opposed Him. We too should not be fearful of those who stand against us. We should, just as Jesus did speak the truth no matter the consequences. Why then did Jesus leave Palestine?

There may be a number of reasons. Perhaps He just wanted an opportunity to rest away from the crowds and consider what He would do next. Maybe He desired a time and place to teach the disciples without constant interruption. Let us consider the place to which Jesus went.

The cities of Tyre and Sidon were located on the Mediterranean coast in what was ancient Phoenicia. Today this is Lebanon and Syria. Both cities had a long history of antagonism towards Israel and God's people. The people of Tyre in fact considered the Jews to be their "bitterest enemies." Tyre was about a 40 miles journey from Capernaum and was the main seaport of the Roman province of Syria and Phoenicia known as Syro-Phoenicia. This made it a very prosperous city boasting numerous pagan temples and twin harbours built on either side of a small island.

Sidon was also an important city but was somewhat overshadowed by the more "glitzy" Tyre 22 miles south. It too was a coastal city boasting two harbours. Sidon was noted for its school of philosophy under Augustus and Tiberius. Both cities were inhabited by a largely Greek population.

Once the Lord Jesus arrives He enters a house secretly. He doesn't want people to know His whereabouts. Why exactly He does this is not explained. Most likely as I suggested before He desires a time of quiet and peace to think and pray away from the demands of the crowds. As we will shortly see He was not able to stay concealed or hidden for long.

Before moving on I want to highlight here a connection with the passage we examined last week. As we saw Jesus explained why he did not follow the man made traditions of the Pharisees. They considered that it was things outside of us that made us unclean or defiled. Jesus pointed out that the things outside of us were just things. What made us unclean was what came out of us. He illustrates His point here by doing two things. Firstly He goes into a Gentile area and secondly He enters a Gentile's house. Both of these acts would under the laws of the Pharisees render Him ceremonially unclean. What Jesus is in effect teaching His disciples and the Jews of His day is as follow.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s and Gentiles. Both are equally unclean and in desperate need of a saviour. Let us read on.

우리는 여기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에 대한 주 예수님의 반응을 봅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거부와 계속되는 공격은 좌절감과 피로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한 그분의 사역에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떠나 이방인 영토로 향하셨습니다. Mark 는 대부분 이방인 청중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따

라서 그가 좋은 소식이 처음에는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글에서 반영한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망쳤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결코 겁먹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단지 군중들로부터 떨어져 휴식을 취하고 다음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생각할 기회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분은 중단 없이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과 장소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을 생각해 봅시다. 두로와 시돈의 도시들은 고대 페니키아였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오늘은 레바논과 시리아입니다. 두 도시 모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반목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들의 “가장 쓰라린 적”으로 여겼습니다. 티레는 가버나움에서 약 40 마일 거리에 있으며 시로-페니키아로 알려진 로마 속주의 시리아와 페니키아의 주요 항구였습니다. 이것은 작은 섬의 양쪽에 지어진 수많은 이교도 사원과 쌍둥이 항구를 자랑하는 매우 번영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시돈도 중요한 도시였지만 남쪽으로 22 마일 떨어진 더 "현란한" 두로에 의해 다소 가려졌습니다. 그것도 두 개의 항구를 자랑하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시돈은 아우구스투스와 티베리우스 치하의 철학 학교로 유명했습니다. 두 도시 모두 그리스 인구가 많았습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은밀히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의 행방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정확히 왜 이것을 하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군중의 요구에서 벗어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원하시기 전에 내가 제안한 것처럼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곧 알게 되겠지만 그분은 오랫동안 숨어 있거나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구절과의 연관성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설명 하셨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더럽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은 단지 사물일 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든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분은 여기서 두 가지 일을 하심으로써 그분의 요점을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그분은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시고 둘째로 그분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바리새인의 법에 따라 그분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께서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더럽고 구세주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계속 읽어 봅시다.

**25 For a woman whose young daughter had an unclean spirit heard about Him, and she came and fell at His feet.**

**26 The woman was a Greek, a Syro-Phoenician by birth, and she kept asking Him to cast the demon out of her daughter.**

We see here evidence of how Jesus' reputation had spread. From His main area of public ministry in Galilee north into Syro-Phoenicia news about Jesus had spread. This was perhaps not as surprising as we might think. Luke in his gospel tells us the following.

**17 And He came down with them and stood on a level place with a crowd of His disciples and a great multitude of people from all Judea and Jerusalem, and from the seacoast of Tyre and Sidon, who came to hear Him and be healed of their diseases, 18 as well as those who were tormented with unclean spirits. And they were healed. (Luke 6:17-18)**

Today 40 miles is not considered a long distance. But in the ancient world this was quite a way for news of Jesus to spread. Also we must factor in that Jesus was a Jew. This area was heavily Greek in its thinking and world-view. Also as I mentioned this region of Tyre and Sidon had a long history of antipathy towards Israel. Despite all this a young woman seeks out Jesus. Perhaps she had been part of the crowds who heard and saw Jesus that Luke tells us about. Maybe she is acting on what others have told her.

Mark describes her as being a Greek. Matthew in his account refers to her as being a Canaanite (Matt 15:22). Saying that she was a Greek does not mean that she was from the country of Greece. Rather it is shorthand for saying she was non-Jewish, a Gentile. She was a native of this particular region, a Syro-Phoenician. She had been Hellenised, as had all these people when Alexander the Great had conquered this region in the 4<sup>th</sup> century BC. She most likely spoke and conversed with the Lord Jesus in Greek.

She comes to Jesus and falls at His feet. This is an act of humble submission. We saw in both the healing of Jairus daughter and the woman with the 12 year flow of blood that they fell at the Lord's feet (Mark 5). The big difference of course between the woman here in Tyre and Jairus and the woman with the blood flow is their ethnicity. They were both Jews and this woman in Tyre is a Gentile.

Clearly news had reached her that Jesus had the power to cast out unclean spirits or demons. She needs His help because her daughter is demon possessed. This shows that the phenomenon of demon possession was not only confined to the Jews. How the actual possession manifested itself is not given to us. However she demonstrates great faith in believing that Jesus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heal her daughter. Let us see how the Lord Jesus responds to her pleas.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의 명성이 어떻게 퍼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봅니다. 갈릴리에 있는 그분의 주요 공적 사역 지역에서 북쪽으로 수로베니카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복음서에 서 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7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려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변에서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질병, 18 더러운 영들에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누가복음 6:17-18) 오늘날 40 마일은 장거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에서 이것은 예수의 소식이 퍼지는 꽤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그 사고와 세계관에 있어서 크게 그리스적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언급한 바와 같이 두로와 시돈의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 대한 오랜 반감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 여성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 군중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에게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Mark 는 그녀를 그리스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는 자신의 기록에서 그녀를 가나안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마 15:22). 그녀가 그리스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녀가 그리스 국가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비유대인,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속기입니다. 그녀는 이 특정 지역 출신인 시로페니키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기원전 4 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을 정복했을 때 이 모든 사람들처럼 그리스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리스어로 주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겸손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야이로의 딸과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12 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막 5 장). 물론 여기 두로와 야이로에 있는 여인과 피가 흐르는 여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들의 민족입니다. 그들은 둘 다 유대인이었고 두로에 있는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분명

히 예수께서 더러운 영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는 소식이 그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녀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현상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실제 소유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에 큰 믿음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께서 그녀의 간청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봅시다.

**27 But Jesus said to her, “Let the children be filled first, for it is not good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little dogs.”**

We have spoken over the past few weeks about the compassion of Jesus. Mark on several occasions makes a point of telling us how Jesus felt compassion for people. Here though as one commentator puts it, “Jesus says the most shocking thing attributed to him in the Gospels.” What do you think when you read this verse? A surface reading suggests that Jesus is referring to this woman as a dog. What a scandalous and shocking thing to say. Now, we have to note that it was the case that the Jews commonly referred to Gentiles as “dogs.” Today, the word “bitch” or “son of a bitch” is used in a similar derogatory way. It was term of harsh contempt for a people they regarded as being defiled and unholy. A people outside of God's grace and favour. Jews referred to Gentiles as “dogs” behind their backs. I doubt they said it to their faces.

Here though Jesus is saying these words directly to this woman. Is He genuinely intending to be offensive?

Is He deliberately insulting this woman? No, let me explain.

The key to understanding what Jesus is saying is bound up in **context** and **language**. Without knowing about these things this verse can very easily be misunderstood. The context here is the dining table. I hope that you enjoy shared family meal times around the table.

When I was younger we would have a family gathering usually once a week. My grandparents, aunts and uncles would all come together and we'd share a meal. Now, of course most of those who sat around the table are gone. But I can picture them in my mind, red cheeked and happy. Its a cherished and warm memory. As we ate the family dogs either slept under the table, or more likely prowled around hoping for a morsel of food to fall down. This then is the context.

The next thing to aid in our understanding is bound up in language.

Do we have any dog lovers listening? I grew up in a family that always kept dogs as pets. They can be great companions and so I understand the attraction they have for many people. A good dog is a devoted and faithful friend. The Jews of Jesus day however were not great dog lovers. In fact quite the opposite. They had a very strong dislike for most dogs. I deliberately used the word “most” there because ancient eastern people made a distinction between two kinds of dog.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공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동정심을 느끼셨는지 알려 줍니다. 여기에서 한 주석가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그분이 하신 것으로 여겨지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표면 읽기는 예수가 이 여자를 개로 언급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말인가.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던 경우에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bitch" 또는 "son of a bitch"라는 단어는 비슷한 경멸적인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럽고 거룩하지 않다고 여기는 백성을 가혹하게 경멸하는 용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등 뒤에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그들이 그들의 면전에서 그것을 말했는지 의심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여인에게 직접 말

썹하고 계십니다. 그는 진정으로 공격할 의도가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이 여자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설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열쇠는 문맥과 언어에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르면 이 구절은 매우 쉽게 오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컨텍스트는 식탁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사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부모님, 이모, 삼촌이 모두 모여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물론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뺨이 붉고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따뜻한 기억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 개들은 식탁 밑에서 잠을 잤거나 음식이 조금 떨어지기를 바라며 배회했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이것은 컨텍스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것은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항상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을 이해합니다. 좋은 개는 헌신적이고 충실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유대인들은 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개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나는 고대 동양인들이 두 종류의 개를 구별했기 때문에 일부러 "가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The first kind of dogs are the small, cute and friendly dogs that make good household pets. In Greek this is the word *kunarion* (koo-nar'-ee-on). It refers to a little dog or a puppy. At times Jewish families would have a little dog living in the house. It was something for the children to play with and perhaps caught rats and mice around the property.

It was the other kinds of dogs that the Jews hated. These big dogs were dirty, feral, wild and scary. It was this kind of dog that gave dogs a bad reputation in the ancient world. They roamed the streets and posed a dangerous nuisance. They scavenged for food in the garbage, dug up corpses and sometimes attacked people. In Greek these kinds of dogs are referred to as *kuon* (koo'-ohn). It is this word that is used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to refer to unspiritual or unclean people. The kinds of people who the Rabbis in particular thought had no place at God's table. For example in Matthew's gospel we read;

**6 Do not give what is holy to the dogs; nor cast your pearls before swine, lest they trample them under their feet, and turn and tear you in pieces. (Matthew 7:6)**

Now which of these two kinds of dogs do you think Jesus is referring to here? It is the first kind. This woman is being likened to the friendly household puppy under the table, not the savage dirty scavenger on the streets. So allow me to paraphrase what the Lord is saying.

“You are the little puppy under the family table. It's not right to give the families food to you before the family themselves have eaten.”

Of course Jesus is not talking here about physical food. He is talking about spiritual food. He is referring to His ministry and the message He is bringing to the earth. This message is primarily to go out to God's chosen people, the Jews. In Matthew's gospel this is the Lord's response to the woman.

**“I was not sent except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Matt 15:24)**

Jesus was sent by the Father to tell His chosen people about the plan of salvation.

Only later would it be given to Gentiles. We see this of course outlined in the book of Acts. Once Jesus had departed the Apostles took the gospel to the Gentile world. But at this particular time this Syro-Phoenician woman was not the proper subject for a blessing. How will the woman respond. Let's see.



첫 번째 종류의 개는 좋은 가정 애완 동물이 되는 작고 귀엽고 친근한 개입니다. 그리스어로 이것은 kunarion(koo-nar'-ee-on)이라는 단어입니다. 작은 개나 강아지를 말합니다. 때때로 유대인 가족은 집에 작은 개를 키울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물건이었고 아마도 집 주변에서 쥐를 잡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개들이었다. 이 큰 개들은 더럽고, 야성적이고, 사납고, 무서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개에게 나쁜 평판을 준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개였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돌아다니며 위험한 성가신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쓰레기에서 음식을 뒤지고 시체를 파내고 때로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스어로 이러한 종류의 개를 쿨온(koo'-ohn)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나 부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특별히 랍비들이 생각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식탁에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십시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6) 이제 이 두 종류의 개 중 어떤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종류입니다. 이 여성은 길거리의 야만적이고 더러운 청소부가 아니라 테이블 아래에 있는 친근한 집 강아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족 식탁 아래에 있는 작은 강아지입니다. 가족이 먹기도 전에 음식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육체적인 음식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 양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역과 그분이 이 땅에 전하실 소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것은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마태복음 15:24) 예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행전에 요약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자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특정한 때에 이 수로페니키아 여자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보자.

**28 And she answered and said to Him, “Yes, Lord, yet even the little dogs under the table eat from the children’s crumbs.”**

Often in life it is only long after the event that we think of the perfect retort. We think of a witty or biting reply only when the moment has long passed. On this occasion the woman gives the most wonderful response exactly on cue. It demonstrates tremendous wit and insight. She was not offended by what Jesus had said. She clearly understood that Jesus was not referring to her as a “dog.” Her answer also shows great humility. She accepts her place or position. She describes herself as being the little dog under the table. It was only right and proper that those at the table (the Jews) get to eat first. The Lord Jesus came to them and it is appropriate that they have first claim on Him. However even those on a lower level, those not at the table have some rights. They might not get the food first, they might not get the best food to eat but they have a right to the crumbs or scraps that are left over. So again let me paraphrase what this woman is saying.

“I accept my place. I have no right to the nice foods on the table. But please can you throw me some of the scraps.”

Let us see what response this receives from Jesus.

종종 인생에서 우리가 완벽한 레토르트를 생각하는 것은 사건이 있는 지 오랜 후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이 오래 지나야 재치 있고 신랄한 대답을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그 여자는

정확히 신호를 받았을 때 가장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엄청난 재치와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또한 큰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나 위치를 받아들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탁자 밑의 작은 개라고 묘사합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유대인)이 먼저 식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했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그들이 먼저 그분을 주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도 테이블에 없는 사람들도 약간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먼저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남은 부스러기나 찌꺼기를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바꿔 말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리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식탁 위의 좋은 음식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크랩을 줌 던져 주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는지 봅시다.

**29 Then He said to her, “For this saying go your way; the demon has gone out of your daughter.”**

The Lord Jesus decides to bless her faith. She showed a humble disposition and great wit. But most of all she is rewarded for her persistence. She is told to return to her home where she will find her daughter cured of demon possession. She does not try to persuade Jesus to come home with her. Rather she accepts what He has said and has faith that what He says is true.

Interestingly this is the only instance of Jesus healing from a distance without a vocal command that Mark recorded. The healing was instantaneous. The demon left the child the moment the Lord Jesus said these words. Let us see how this story concludes.

주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녀는 겸손한 성품과 훌륭한 재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녀는 그녀의 끈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것을 고칠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그녀와 함께 집에 오도록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Mark가 녹음한 음성 명령 없이 먼 거리에서 예수님이 치유한 유일한 사례입니다. 치유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 마귀는 아이에게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봅시다.

**30 And when she had come to her house, she found the demon gone out, and her daughter lying on the bed.**

The story ends with the kind of happy ending we all enjoy. When the woman arrives home she finds her daughter lying on the bed. Are we to take anything from the fact that she was lying on the bed. It is only speculation of course but maybe the demon tormented this girl and made it difficult for her to lie or rest. Perhaps like a fevered child she tossed and turned throughout the night. The mother therefore knew as soon as she sees her lying in peace that the unclean spirit has departed

We might wonder how Mark knew this to be the case. It's a detail that only an eyewitness would recall. Perhaps one of the disciples accompanied the woman home and then reported back to the others. Once again this is only speculation.

We must imagine that this story greatly interested Mark's original readers. They, just like the Syro-Phoenician woman were Gentiles. How excited they must have been to learn about the Lord Jesus' care and concern not only for the chosen people but also for them. How exciting it is for us too.

We too are invited to the feast. We might not be Jews but God welcomes us and has a place for us at the table. Next time Lord willing we will follow Jesus as He again travels through Gentile regions.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즐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딸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취해야 할까요? 물론 추측일 뿐이지만 아마도 악마가 이 소녀를 괴롭혀 그녀가 거짓말을 하거나 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열이 난 아이처럼 밤새 뒤척였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는 자기가 평안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더러운 귀신이 나간 줄을 알았더라 우리는 Mark가 이것이 사실임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목격자만이 기억할 수 있는 세부 사항입니다. 아마도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집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마가의 원래 독자들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고 상상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로페니키아 여인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주 예수님의 돌보심과 관심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우리도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고 식탁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실 때 따라갈 것입니다.

###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wo comments to make on today's passage of scripture.

#### **1 Jesus cared for the nations and so should we**

As far as we know this was the only time that Jesus left the borders of Israel. He spent most of his time on earth in the Galilee region. But today we saw Him travel north into Phoenicia. There was a good reason why He purposefully devoted Himself to northern Israel. His primary concern was to minister to God's chosen people. They were to hear the message first and only then was it to go out to the nations. Now we are more than 2000 years farther along in the story. The gospel has gone around the world. Every nation has heard the good news or has it?

In the USA there is an organisation known as the Joshua Project ([www.joshuaproject.net/](http://www.joshuaproject.net/).) Their mission is to coordinate the work of missionary organizations. They do this in order to track the ethnic groups of the world with the fewest followers of evangelical Christianity. Here are some of their most recent findings.

They estimate that there are 17,443 “people groups” in the world. By people group they mean a group of people that share a common ethnic identity. So within a country or nation there may be many different ethnic groups. For example in South Korea they identify 23 different people groups. Of these people groups around the world, 7,425 are “unreached.” In terms of people this means around 3.37 billion people or 42% of the world's population. Let me put it simply. 42% of the people now living on earth have not properly heard the gospel. Because unreached groups contain so few Christians they will struggle to evangelise others in their people group. They need help to do this.

So there is still much to do. The Lord Jesus cared for the nations. He left us with the mission of taking the good news and sharing it with all people. Perhaps we cannot for a variety of reasons be missionaries ourselves. But can we encourage or financially support missionaries or groups who train and equip those who will go out? Let me leave you with a question. What can you do to help fulfil the great commission?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국경을 떠나신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분이 북쪽 페니키아로 여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러 북이스라엘에 헌신하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은 먼저 메시지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에게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2000 년 이상 더 멀리 와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미국에는 조슈아 프로젝트([www.joshuaproject.net/](http://www.joshuaproject.net/))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선교 단체의 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가 가장 적은 세계의 소수 민족을 추적하기 위해 이렇게 합니다. 다음은 그들의 가장 최근 발견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세계에 17,443 개의 "민족 그룹"이 있다고 추정합니다. 종족 그룹이란 공통된 민족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국가나 국가 내에는 다양한 인종 그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23 개의 서로 다른 종족을 식별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이러한 종족 그룹 중 7,425 개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사람으로 환산하면 약 33 억 7 천만 명 또는 세계 인구의 42%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42%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미전도 그룹에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종족 그룹에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주 예수님은 열국을 돌보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선교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날 사람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선교사나 그룹을 격려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위대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2 A humble and persevering character is what gets results**

We see a number of notable characteristics in the Syro-Phoenician woman. It is therefore worth studying and learning from her behaviour. Firstly, and perhaps obviously we see her come to Jesus with her request. Most likely prior to this she had tried other means to help cure her child. How often, subconsciously perhaps do we think that we alone can solve some problem or issue in our lives. Let us learn then to take our problems and burdens to the Lord without delay. Secondly she had a humble spirit. She held no lofty ideas about who she was. She did not bristle with offence when Jesus likened her to a little dog. So often pride puffs us up and makes us think we are something special or important. Let us be humble and know our place. God owes us nothing. But in His loving grace He gives us everything. Thirdly she boldly asked for what she wanted. Although culturally it may have been difficult to come and fall before the Lord Jesus she did so. She was not timed or afraid. We too at times need to be bold in coming before God and seeking His mercy. Fourthly she had faith. She did not seek additional clarification or assurances from Jesus. She did not urge Him to follow her back and make sure the exorcism worked. She simply believed His words and had faith. How often does our faith waiver. Let us put our faith in our God who always does what He says He will. Fifthly and finally she persevered. Matthew in his gospel tells us that the disciples tried to shoo the woman away. She was a nuisance. The woman however persevered. She wanted to speak with Jesus and nothing would stop her. We too must persevere. There are many things in life that may try and block our way to Christ. May nothing ever hinder or hamper our journey to our saviour.

우리는 수로-페니키아 여인에게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을 봅니다. 따라서 그녀의 행동에서 연구하고 배울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마도 분명히 우리는 그녀가 그녀의 요청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전에 그녀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얼마나 자주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떤 문제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와 짐을 지체 없이 주님께 가져가는 법을 배우도록 합시다. 둘째, 그녀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고상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작은 개에

비유하셨을 때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종종 우리를 우쭐대게 만들고 우리가 특별하거나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겸손하고 우리의 위치를 알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은혜로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비록 문화적으로 주 예수님 앞에 오고 넘어지는 것이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시간에 쫓기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자비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추가적인 설명이나 보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그녀를 따라와서 엑소시즘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믿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자주 포기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항상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섯째로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그 여자를 쫓아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었고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인내해야 합니다. 삶에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방해하고 막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구세주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